영상에서 AI의 핵심 기반인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발상이 불과 2012년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13년 만에 이룬 발전은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얼마나 더 빠를 것이며, 미래에는 어떤 AI를 마주하게 될까? 인간은 과연 이러한 AI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영상 속 교수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AI 에이전트 사용해 보기, 바이브 코딩 하기, 5분 단편 영화 만들어보기. 이 세 가지 방법이다. 이 방법들을 통해 AI의 가능성을 체감하고,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점을 직접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활용하는 법을 깨우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경험이 쌓여 AI에 대한 직관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직접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는 군 복무 중이라 그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겼다. 군대에서는 AI가 딱히 필요 없었기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전역 후 복학하고 나서야 과제나 공부에 AI를 쓰는 동기들을 보며 AI가 느껴졌다. 나 역시 AI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교수님이 말한 활용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딩 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 AI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 그 정도에서 멈춘다. 그랬기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활용을 넘어 직관이 생길 때까지 AI에 부딪혀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또한 교수님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궁극적인 능력으로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AI가 수천 개의 결과물을 쏟아내더라도 그중 가장 유용한 것을 고르는 것은 결국 사용자인 나의 몫이다. 그리고 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AI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영상은 AI에 대한 나의 막연한 두려움을 의지로 바꿔주었다. AI를 그저 사용하던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직관이 생길 때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 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또한 AI의 수백 개의 결과물 중 판단하기 위해 질문하기 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하였다.